

“민생경제 회복 · 미래산업 기반 조성”

전북자치도, 30일~7월 4일 주요 일정 발표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협의회 출범식
민선8기 3주년 성과 · 정책 비전 발표 등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은 지난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30일~7월 4일 전북자치도의 주요 일정과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도정의 핵심 현안들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추진과 미래산업 기반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주 첫 일정은 30일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협의회 출범식’이다. 전주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과 우범기 전주시장,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전북조달청장, 그리고 도내 방위산업 관련 68개 협약기업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산업 육성과 협력 체계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도내 방위산업 분야 기업간 네트워크 증진과 교류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는 장수군에서 ‘장수 임대해 수직농장 준공식’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기업인 CJ와의 연계를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한 식재료(주로 민두 관련 원료)를 전량 계약 납품하는 모델로 청년 3개 팀(총 6명)이 시범적으로 참여한다.

전북도는 이 모델의 성공을 기반으로 향후 확산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7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민선 8기 3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려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 비전을 직접 발표한다.

이어 오후에는 한옥마을에 위치한 옛 도지사 관사인 ‘하얀 양옥집’ 개관 1주년 기념행사도 마련돼 있다. 여기에서 도민 작가와의 소통도 가질 예정이다.

7월 2일 오후 4시에는 완주군 봉동소재 골드밸에서는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성과보고회’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가 참여한 이 사업은 전북형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통해 도내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해 왔다.

김 대변인은 “김관영 도지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7월 3일에는 ‘미래첨단산업군 정책 브리핑’이 예정돼 있으며,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수소) 관련 국정과제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이 지난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30일~7월 4일 주요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반영 전략이 중심 주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데메이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대표협의체’가 열리고, 오후 3시에는 임실군 오수 제2 농공단지에서 ‘뉴트리코어 공장 준공식’이 각각 열린다.

뉴트리코어는 와사비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 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역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사회적기업 육성 전국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1조3,288억원에서 1조5,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84억원 증액되게

발행해서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 돌봄 통합서비스 시행 1주년 등 민생 친화적 성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성장 사다리 기업 리더스 포럼’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JB, 우리캐피탈) 등 다양한 시군 및 실국별 행사가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김철태 대변인은 끝으로 “전북도는 앞으로도 정례 브리핑과 수시 발표를 통해 도정의 모든 현안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도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취재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 국회의원 2명, 상임위장 선출

예결위원장 - 한병도 의원 · 법사위원장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읍)과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각각 국회 예결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



〈예결위원장〉
한병도 의원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

이어, 원내 대표 임기를 마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운영위원장 사임 건,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문화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은 원광대 총학생회장과 전북 지역학개대표자협의회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고, 17·21·22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3선 고지를 밟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이재명 당시 대통령 경선 후보 선거캠프 상황실장을 역임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원광대 법학과 겸임교수를 지냈다. 18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했고, 원내부대표 · 대변인 ·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 국회 사무총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다.

한편, 국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의원,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의원(민주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이재명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상임위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고심 끝에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했다.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는 것은 시급한 민생 · 경제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장으로서도 유감스럽지만 더 지체하기보다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여야가 새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2대 국회 초 원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부연했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정례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2025년도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마쳤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했고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정단가 적용을 위한 행정안전부 예산 개정 촉구’ 건의안,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국립군산전문과학관 설립 추진 건의안, 김영일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권 지역 주도 통합 추진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 등을 가결했다.

서동수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12일간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준 동료의원과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난 27일 전북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전주 현대옥 본점 앞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뒤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 국가 균형발전 핵심 축”

민주 정청래 의원, 전북 찾아 지방의제 · 노동 현안 청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7일 전북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과 시 · 군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일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청래 의원의 첫 전북 방문으로, 지방의제 및 민생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향후 입법 ·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오전 7시 30분에는 전주 현대옥 본점에서 전북도의회 의원 18명과 함께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새

만금 국가산단, 농생명산업 육성, 교육 · 복지 등 지역 현안과 향후 협력과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어 오전 9시에는 전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전북 시 · 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간담회가 열렸다. 전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관우 전주시의회의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전북 각 시 ·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대부분이 참석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자치분권 확대, 지역 정책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전 10시 10분부터는 한국노총 전북

지역분부를 방문해 권기봉 의장, 이인구 사무처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 30여 명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 등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과 지역 노동계의 현황 목소리를 공유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전북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며, 도민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겠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들은 제안들은 향후 입법과 예산 논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의원실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과 중앙이 함께 민생을 챙기고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지역 발전과 정책 협력을 이끌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정례회 폐회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지난 27일 제27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 예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대한 심사를 진행, 의원 발의 조례 18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 · 의결됐으며, 시정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7건, 결의안 1건, 건의안 2건 등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조례안이 다수 처리되었다.

김영태 의장(사진)은 폐회사를 통해 “내일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자치도선관위 문승철 상임위원 취임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7월 1일자 문승철(57 · 사진) 상임위원(1급, 관리관)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문승철 상임위원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장 · 총무과장 · 지도과장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7월 1일자로 총무과장에 이재만(3급, 부이사관) 선거과장에 전보 · 발령했고, 서흥식 선거과장(전 도선관위 총무과장), 임찬희 군산선관위 사무국장(전 익산선관위 사무국장), 김정수 익산선관위 사무국장(전 중앙선관위 사무처) 등 4급(서기관) 3명의 전보와 5급(행정사무관) 10명의 전보, 6급(행정주사) 23명의 승진 및 전보 발령도 함께 단행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올해 상반기 이임식 가져

정웅 사무처장 등 4명 퇴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7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이임식을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퇴임하는 정웅 사무처장과 김준호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 기획행정전담위원 등 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무처 직원들도 헌신적으로 봉직한 후 퇴임하는 선배 공무원들의 공적을 되새기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문승우 의장은 송별사를 통해 “세 분이 걸어오신 길은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신 참된 공직자의 본보기였고, 그 시간의 무게는 우리 모두의 존경심으로 남았다”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 새로운 열정이 함께하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퇴직자를 대표해 정웅 사무처장은 “지난 34년 간의 공적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데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컸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 뒤 “진심을 다한다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산업전환 영향 받는 노동자 등 지원체계 마련

도의회, 서난이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원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 · 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조례’가 제419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를 반영해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난이 의원은 “디지털전환 등 산업 전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도민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북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는 △매 5년마다 고용안정 지원계획 수립 · 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만호 기자